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누리의 진리는 '비동비정'이다

마음씨 타령 ⑤

돌말이 뛰어가. 돌장승이 말을 해. 실로 우리가 이 자리, 가고 오는 것이 없어요. 가도 가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리를 알아야 이걸 압니다. 납득이 갑니다. 만약 가는 것을 가는 걸로 보고 오는 것을 오는 걸로만 봐, 가고 오는데 지우쳐 버려. 그러하면 이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가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는 걸 간단과 비유합니다. 내가 죽었어. 이거는 없어졌어. 없어졌다 합시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가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났다 합시다. 나도 난 것이 아니거든요. 파도가 생겨도 물을 여린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 자리는 휘영청한 자리 의정한 자리, 그 자리거든요. 그때문에 나긴 뭘 나. 나는 듯한 거예요. 가는 듯한 거예요. 전부 뜻이예요. 우리가 사는 듯 나눈 듯 남자인 듯 여자인 듯 늙은 듯 젊은 듯 한 거뿐이예요. 왜 뜻있고? 늙음이란 정법이 없습니다. 정법이라면 한 번 딱 늙으면 영원히 늙어야 되는데 그것도 변해, 변해. 젊은 것도 듯한 거예요.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젊은 것이 차차차차 늙어. 전부 뜻 늙음입니다.

그렇다면 가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이죠. 돌말이 가만있는데 가만있는 것이 가만있는 거예요? 가만있는 것은 가만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또 가도 가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분비방 그걸 알면 이까짓 말 참 쉬워요. 아주 쉬운 말이예요. 조금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 의미로구나. 우리는 말에 얽매이지 말고 그 말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팔만대장경에 얽매이지 말고 팔만대장경의 뜻을 알아야 되요. 그렇다면 돌말이란 것도 하나의 보리상이예요. 그러나 이 자리는 보리상이나 뜻이나 말할 것도 없고 편다 안 편다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편만 참말이 되는 건가요. 돌말, 이것도 역시 하나의 환상으로서 나타난 거라 말이죠. 안 뛰는 건 참말로 안 뛰는 건가요? 뛰는 건 뛰는 것이 아니고 이름뿐인 뛰는 것이고 안 뛰는 건 안 뛰는 것이 아니고 이름뿐인 안 뛰는 거라 말이죠.

그러하면 돌말이 편다고 한 사람이 얘길 했던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맞아. 편다 해도 좋아. 안 편다 해도 좋아.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설법을 통해서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돌말이 편다. 지화자 좋을싸고 돌말이 편다. 이걸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피어. 그거 참말로 편 건가요? 참말로 편 것이라면 영원히 있어야 되게? 곧 떨어져. 그 참말로 꽃이 떨어지는 건가요? 나중에 또 피어. 꽃이 피는 건 파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돌말이 편다. 편기 뭘 뛰어. 그러나 또 어찌 안 뛰어 말이며. 왜 그러냐면 편 것은 편 것이 아

고 정도 아닙니다. 비동비정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동 가운데 정이 있어. 정 가운데 동이 있어. 그러하니 우리가 움직거리. 그러나 다 움직거리라는 것은 아니거든. 그 가운데는 정이 있거든. 정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 또 정은 동이 있어. 동이 있기 때문에 정이라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동은 비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다면은 생사, 생은 사가 있기 때문에 생이라 말을 하고 사는 생이 있기 때문에 사란 말을 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로요. 그러하니 뛰는 것은 안 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안 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 중에 정이 있듯이 뛰는 가운데는 안 뛰단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 봐도 좋아요. 안 편다는 것은 편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뛰고 안 뛰는 건 똥이 아니다. 통과 정은 똥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이 누리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긍정이 갑니다.

처음에 이런 도리를 모르고 그만 말마디 거기에만 딱 들어앉아 버리면 참 있을 수 없단 말이지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지화자 좋을싸고 돌말이 뛰네. 돌말도 뛰어. 뛰는 듯해도 좋아. 모든 것이 사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이러하니 뛰는 듯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 자리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결정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니고 안 뛰는 것은 안 뛰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말을 딱 꼬집어서 하자면 편다고 해도 말이 돼. 안 편다고 해도 말이 돼.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리의 진리는 모습으로 봐서 차별현상으로 봐서 동, 움직일 동자, 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절대로 동을 위한 동 아닙니다. 동, 정이 둘 있는데 이진 교묘한 것. 이진 움직이는 것 이랬는데, 여러분, 동이란 말이 어디서 성립이 됩니까? 이 정자가 있기 때문에, 교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없으면은 절대로 동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정, 이진 교묘함을 뜻하는 건데 동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동이 없는데 정이란 말은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하니 이 누리의 진리는 동도 아니

고 정도 아닙니다. 비동비정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동 가운데 정이 있어. 정 가운데 동이 있어. 그러하니 우리가 움직거리. 그러나 다 움직거리라는 것은 아니거든. 그 가운데는 정이 있거든. 정 없으면 움직이질 못해. 또 정은 동이 있어. 동이 있기 때문에 정이라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동은 비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다면은 생사, 생은 사가 있기 때문에 생이라 말을 하고 사는 생이 있기 때문에 사란 말을 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로요. 그러하니 뛰는 것은 안 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안 뛰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 중에 정이 있듯이 뛰는 가운데는 안 뛰단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 봐도 좋아요. 안 편다는 것은 편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뛰고 안 뛰는 건 똥이 아니다. 통과 정은 똥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하니 여러분이 누리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긍정이 갑니다.

처음에 이런 도리를 모르고 그만 말마디 거기에만 딱 들어앉아 버리면 참 있을 수 없단 말이지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지화자 좋을싸고 돌말이 뛰네. 돌말도 뛰어. 뛰는 듯해도 좋아. 모든 것이 사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이러하니 뛰는 듯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 자리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결정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우선 오늘 저녁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 돌말이 뛰네 돌말이 노래를 한다. 나무달이 무공적이, 구멍 없는 파리를 본다. 줄 없는 거문고 소리를 듣는다. 이 말 전부 아까 돌말이 뛰네와 이 소식하고 같은 얘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는 그 누리의 지도리를 딱 파악한 뒤에는 이거 마음대로 쓴다 이겁니다. 마음대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까짓 거 걸러칩니다. 마음대로 써도 그 말한 그대로라요. 하군, 알겠나. 우정,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벌써 편다 안 편다 상대성 아닌 가? 그러기 때문에 뛰는 것은 뛰는 것이 아니고 안 뛰는 것은 안 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리,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누리의 진리를 파악함으로써만이 이 말이 소화 가능. 그 전에는 소화 안 돼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진흙 구덩이 속에 연꽃이 핀다

17-2 회향계(回向偈)

그런데도 불구하고 흔히들 계율을 일괄하여 혼동해 버리고 율도 또한 계인 것처럼 착각하는 수가 많다.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에서 비구(比丘)와 대처(帶妻)로 분열되어 싸우는 것도 그 연원을 깊이 따지고 들면 이 율장(律藏)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계와 율을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부처님이 설사 말씀하셨다손 치더라도 이를 지키느냐 어찌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로서 곤란한 점이 많다. 이것은 난행도(難行道)이다. 물론 하기 어려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편이나 존귀하고 거룩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 우리가 그런 곤란한 일을 꼭 해야 되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이설(異說)이 있다. 자칫하면 집정 계율을 지키는 척하고 실상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성(自性)을 속이는 그런 가장이 있고, 위선·가식·거짓부름이 따르는 것이다. 그리하여 율은 더 이를 나 위도 없고, 계에 있어 선행(善行)을 닦는 다는 거짓말을 안 한다든지 살생을 하지 않는 다든지 하지만, 우리가 엄밀한 의미로 이를 고찰해 볼 때 그런 계를 지킨다는 것이 실지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깨닫는다.

생물로서의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산 것을 죽이지 않을 수 없다. 옛날 사람 생각으로는 동물을 죽이면 살생이고 식물도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따라서 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자연과학(自然科學)이 발달하여 동물과 식물도 다 한가지로 생명체인 이상 생물학에서 통틀어 연구하게 되었으며 또 깊이 들어가면 동물과 식물의 한계가 모호한데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쌀이나 보리 같은 식물도 이를 먹어도 살생이 아니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말이 되었다.

식물일지라도 엄연히 그 자체의 생명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빼앗는다면 틀림없이 동물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심지어 물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微生物) 같은 것이 팍 들어 있는데 그렇다만 물 마시는 것조차 벌써 살생이 된다. 물론 이런 것이 모두 다 살생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루라도 살생을 하지 않고는 못 살아간다. 중생은 이렇듯 죄악의 업장(業障)이라는 것이 깊고, 도무지 헤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 구되는 것은 계가 아니라 죄악의 자각과 우리 스스로가 못나고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데 대한 심각한 반성인 것이다.

계율이란 제아무리 지키려고 애쓰고 해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조목마다 다 지켰다손 치더라도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이 영성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꽃은 높은 산이나 산 봉오리에 피는 것은 아니다. 진흙 구덩이 속 연꽃은 더럽고 지저분한 요소에 하나도 물들지 않고 꽃잎에 향기를 피워 자랑한다.

인간은 오탁악세에서 성도 내고 탐심도 부리며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는다. 이러한 가운데서 연꽃처럼 옳은 사람 노릇하는 이아말로 참다운 사람이다. 현실을 도피한다면 연화세계는 생각할 수 없다.

이 계율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다는 소린가? 그것은 오직 염불을 하는데서만 청정하게 성취되는 것이다. 험사리나 무아미타불로서 완전히 계율이 이루어진다.

일본의 친란상인(親鸞上人)이라는 이는 아무리 애써도 계를 지킬 수 없었다. 그는 인물이 잘 생기고 펍 풍모가 있는 사람이어서 여성들이 자꾸만 따르니 이들을 물리칠 수 없어 인정을 쓰다 보니 연애를 자꾸 거듭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죄를 참회하는데는 염불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

다. 그는 이렇듯 인간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고백하였다는 점으로 많은 추앙을 받게 되었다. 이에 관련되어 재미나는 얘기는 춘원 이광수(春園 李光洙)가 원효대사(元曉大師)라는 소설을 지어냈는데, 여기 나오는 원효대사는 친란과 방불한 데가 있다. 원효대사는 결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데, 일본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집어넣어 만든 사람 만들어 왜곡된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원효대사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격을 갖추어 어느 모로 보나 완전무결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사람 노릇을 빈틈없이 하는 것이 부처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원효대사의 말씀에 무리지어(無理之至理)하고 있다. 아무 이치도 없는 무리한 것 가운데 지극한 이치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불연지대연(不然之天然),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차라리 커다란 긍정으로서 참된 이치가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사회는 오탁악세(五濁惡世)로 진흙 구덩이와 같다.

진흙 구덩이 속에 연꽃이 핀다. 연꽃은 높은 산이나, 산 봉오리에 피는 것은 아니다. 진흙 구덩이의 연꽃은 더럽고 지저분한 그런 요소에 하나도 물들지 않고 꽃잎에 향기를 피워 자랑할 수 있고 그래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라는 말도 있다. 인간은 이 오탁악세에서 성도 내고 탐심도 부리며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런 일 안 하고는 안 되게 되어 있다.

손톱 속에 흙도 넣고 손으로 빗자루도 들고, 더러운 것, 정한 것, 가리지 않고 만져야 된다. 이러한 가운데서 연꽃처럼 옳은 사람 노릇하는 이아말로 참다운 사람이다. 이를테면 오탁악세를 떠나 현실 도피를 한다면, 연화(蓮花)세계는 생각할 수 없다. 이를테면 무순과 부조리한 현실의 진흙 속에서 진리의 오묘한 꽃은 창조되는 것이다. 이것이 원효대사의 사상이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전 3권)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임이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미기록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굼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들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 분 60분,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정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08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가향 마가목을 찾아서 촬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병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병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KBS-1 TV 한국인의 방상 경남 밀양 알음골 마가목, 건강성 병영
- 2014년 10월 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 5시 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병영

하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에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腎臟)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력, 조강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여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현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에 대중공양 율리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능형 : 227027-51-090791 (예금주: 남궁성균) · 제조원: 구암약품 · 식품제조업: 대구 북 목 00619호

영남 범음. 범패 제 4기 학인모집

본 염불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의 내용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재, 49재, 모든의식, 작법무-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각사물 등..
- 교육과정 : 6개월과정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문의처 : 010-5065-5690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영남범음범패 염불원장 재봉 합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신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어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학교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처명)